

전남대서 이송됐거나 교도소 내부 방치 사망 추정

광주교도소 암매장 첫 확인...5·18 행불자 어디에서 희생돼 옮겨졌을까

3공수 주둔지 수십년간 주목...계엄군 진술 유독 많아 발굴만 5차례
광주~담양 이동 민간인 희생자 가능성도...암매장지 철저한 조사 필요

5·18민주화운동 당시 암매장된 행방불명자가 42년만에 Y(사망당시 23세)씨로 확인되면서 Y씨가 어디에서 희생돼 이송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제22호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가 암매장지로 주목받아 온 지는 수십년이 됐지만, 이제야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그동안 옛 광주교도소에서 5·18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이 이뤄진 것은 다섯 차례에 달한다. 특정 장소에서 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이유는 옛 광주교도소가 암매장 관련 계엄군 진술이 유독 많았기 때문이다.

계엄군의 진술을 종합하면 광주교도소에 암매장된 행방불명자의 유입 경로는 3군데로 좁혀진다.

▲전남대에서 이송되던 중 사망한 사람 ▲광주교도소 내부에서 사망한 사람 ▲광주-담양간 이동중 인 민간인 희생자 등이다.

특히 이번에 유가족의 유전자와 일치한 행방불명자의 경우는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사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에서 전남대나 시내에서 계엄군에 의해 부상을 입고 이송되는 과정이나 교도소 내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엄군은 1980년 5월 20일부터 21일 사이 광주 시내에서 체포한 시민들을 대검으로 살상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심한 부상을 입은 시

민들을 광주교도소로 이송해 방치 후 사망에 이르자 암매장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랐다는 점도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 하고 있다.

옛 광주교도소는 1980년 5월 21일부터 5월 24일 까지 3공수여단이 주둔했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의 암매장 관련 증언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다.

대부분의 내용은 전남대에서 끌고 온 시민들과 교도소 주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시민들을 암매장했다는 것으로 계엄군이 물레 묻은 시신 11구(광주교도소 관사 인근 8구, 광주교도소 앞 야산 3구)는 5·18직후 교도소 주변에서 발굴됐다.

구체적인 계엄군의 증언을 보면 3공수 본부대 소속 A병장은 "1980년 5월 21일 전남대에서 시위를 하다 잡혀온 시민 중 9명이 질식사 상태에서 숨겨져 있는 것을 고참병들이 리어카 2대를 이용해 옮겨서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또 3공수 11대대 소속 B소령은 "교도소 정문에 접근하는 차량에 사격, 시신 3구를 100여m 떨어진 도로 인근 야산에 암매장 했다", "15대대 부대원이 광

주교도소 남쪽 담장 인근에 22-25구의 주검이 묻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복족 담장 인근에도 10구를 묻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러한 증언은 수 십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 1989년 국회 청문회 당시에는 3공수 소속이었던 D 부사관이 "5월 22일 새벽 교도소 관사인근 소나무 숲에 시민들의 시신 5~7구를 가매장했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

여러 장소에 나눠 암매장 됐다는 유골이 한데 뭉쳐져 있는 점에 대해서도 오월 전문가들은 교도소 부속 건물과 시설 등을 짓기 위한 확장공사가 진행되면서 발견된 시신들을 무연고 묘로 합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광주교도소에서 발행한 '광주교도소사' 등에 따르면 1983년 12월 유골이 발견된 공동묘지 인근에 경비교도대가 완공됐고, 1986년에는 광주교도소 서쪽 담장인근에 폐수처리장이 지어졌다.

이러한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시신들이 무연고자

로 처리돼 합장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Y씨의 유전자 확인된 유골 더미도 무연고자 공동묘지에서 발견됐다.

무연고자 묘지는 교도소 안에서 사망했거나 가족 등 연고가 없어 매장하는 곳으로 2년 이내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으면 화장 또는 합장이 진행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동명동 있었던 광주교도소가 1971년 문흥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무연고자 유해를 콘크리트 처리했고, 이후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발견된 유해들을 위에 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발굴 당시 법무부는 옛 광주교도소 공동묘지에 개인 묘 50기와 합장묘 2기(20구, 41구) 등 모두 111구의 유골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중 41구가 묻힌 합장묘를 개장해보내 기록되지 않은 시신이 무더기로 발굴돼 총 261구의 유해가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정할 수 없는 현실...진실 밝혀지고 있다”

진상 규명 박차...한사람도 빠짐없이 가족 품 돌아가길

5·18 행불자 유족들·기념재단 반응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행방불명자 조사와 암매장 의혹의 진상 규명에 더욱 힘이 실리길 바랍니다.”

26일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행방불명자 유가족들은 옛 광주교도소터에서 발견된 유골 유전자(DNA) 정보가 한 행방불명자 가족과 일치한다는 조사 결과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불자 문미숙(당시 10세)양의 오빠인 성옥씨는 “당사자가 어떤 분이었던 간에, 40년 넘는 세월을 그리움과 후유증 속에 살아 온 가족들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며 “암매장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 화도 나고, 옛날 고통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다”고 씁쓸한 심정을 전했다.

문양은 전남도청 앞 계엄군의 집단 발표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학동삼거리에서 실종됐다. 문양의 마지막 목격자인 모친 또한 이듬해 5월29일 충격으로 세상을 등졌다.

성옥씨는 “암매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 만으로도 대단한 진전이다”며 “그간 암매장 사실은 뜬 소문마냥 실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규명을 위해 암매장 유골의 진상 파악에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도 시민·선배들과 함께 싸우겠다”며 21일 전남도청에 갔다가 행방불명된 김기운(송원고 2년·당시 18세)군의 작은아버지 형태씨도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잘 안다.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지니 환영할 일이다”

며 반겼다. 김군은 21년 동안 행방불명된 상태였으나 지난 2001년 10월 광주시립묘지에 묻힌 시신이 유전자 감식을 통해 밝혀지면서 가족 품에 돌아왔다.

형태씨는 “암매장 된 사람들 중에는 행방불명자 인정조차 못 받은 사람도 많다”며 “오랜 시간 끝에 기운이의 시신을 되찾을 수 있었듯이, 억울하게 암매장 된 사람들도 한 사람 빠짐없이 진상이 밝혀져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1980년 5월 19일 아침밥을 먹고 나간 뒤 종적을 감춘 정복남(당시 30세)씨의 형 옥남씨도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정체도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안타깝다”며 “암매장지 시신 확인이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타는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도 매장 의혹은 증언, 목격담, 군 기록을 바탕으로 꾸준히 제기됐으나 신원이 확인된 것은 42년만에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행방불명자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은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의 연결 고리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5·18진상조사위는 그동안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신고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유전자 확보를 통해 진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민 학살을 은폐했던 과거에 책임을 지고 행방불명자의 명예 회복과 미진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6일 오전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불이나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초기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 <대전소방본부 제공>

대전 아울렛 화재 8명 사상

대전의 대형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6일 오전 7시 40분께 대전시 유성구 용성동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불은 오후 3시께 완전히 꺼졌다.

사상자들은 지하실에서 택배·청소·방화 등 업무를 하던 근무자로 확인됐다. 아울렛이 개장하기 전이라 외부 손님은 없었으며 월요일 아침 시간이라 하역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소방본부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 하역장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업체 측은 지난 6월 시설 업체에 맡겨 시행한 소방점검 결과 일부 지적된 부분을 개선 조치했으나 점검을 막지는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법원 접근 금지명령 어기고 ‘집요한 스토킹’

완도경찰, 60대 구치소 수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완도에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스토킹을 한 남성이 구치소에 수감됐다.

완도경찰은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23일 잠정조치 4호를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잠정조치 4호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개월 입감하는 조치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50대 여성 B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전화를 하고,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고소됐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 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인 잠정조치 2호, 3호를 통보받아 B씨 주거 및 직장 100m 접근

과 전기통신매체 이용 접근이 금지됐다. 그런데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B씨에게 1997회 전화하고 40회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을 파악하고 법원에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정원균 완도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스토킹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안전을 위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기간	정상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